

전주시 공약 누진 추진률 92.9%

공약자문위, “사람 존중·전주 품격 높이는 노력 흔적들 보인다”... 소통 중심 행정에 높은 점수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 전체 공약사업 중 누진 추진률 92.9%를 보이며 쾌속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시공약자문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말 기준으로 4개 분야 94개 공약사업의 진척도와 실행 계획 달성에 대한 종합점검 평가를 실시했다.

공약자문평가단 평가 결과 94개 공약사업 중 29개 사업이 완료됐고 45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정상추진 등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선 6기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막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

주'라는 시정목표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전주경제, 창의교육 문화도시, 지속가능 생태도시 등 4개 분야, 94개 공약을 제시하고, 지난 3년간 분야별 공약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이행률은 2.7% 증가해 92.9%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올 2분기에는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택시승강장 신설 및 관리, 열섬영향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3건의 공약 사업이 완료됐다.

뿐만 아니라,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청년 건강검진 사업 등 청년 공약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운영, 독거노인 생활안전시설 설치, 보훈수당 인상지급,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 등 안정된 복지도시 만들기, 일자리 창출활성화를 위한 기업육성 사업은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사업도 충실히 이행해 냈다.

또한, 창의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효자동서관을 설립·운영했으며, 1000만 관객 유치와 전주 생태역사문화의 길 관광자원화, 전주 특화거리 조성 등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밖에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시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공약자문위원회는 “전주시 공약사업들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을 존중하고, 전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들이 엿보인다”며 완성도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 중심 행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전주시는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업 실천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일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높은 이행률을 기록하며 2017년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평가를 토대로 추진률이 저조한 사업의 쟁점해소와 추진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최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부모 역량강화교육

전주시는 7일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에 참가하는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제1기 야호학교 부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자녀의 자율성 키워주기, 가족구조 이해하기, 부모-자녀 간 갈등,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토대로 부모들이 구조화된 집단 속에서 자녀교육 시에 일어나는 생활상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교육에는 정혜선 전주시청 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를 주제로 총 3시간 동안 강의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는 야호학교 부모역량강화 교육을 총 7기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슬로시티 전주교육'도 포함됐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며 “슬로시티 전주교육이 커리큘럼에 포함돼 내실 있는 역량강화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로 총 3시간 동안 강의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는 야호학교 부모역량강화 교육을 총 7기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슬로시티 전주교육'도 포함됐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며 “슬로시티 전주교육이 커리큘럼에 포함돼 내실 있는 역량강화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성추행관련 감사 앞둔 교사 숨진채 발견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부안의 한 교사가 숨진채 발견됐다.

7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 백구면 한 주택의 차고에서 A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A교사는 최근 해당 학교의 학생 성

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북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교육청의 감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4월 A교사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센터 조사결과 A교사가 학생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월 해당 학교에 감사일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노석만 전 도의원 징역형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노석만 전 전북도의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80만원 및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도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3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시설 설치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 가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 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한 점,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 한 점,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노씨의 회사 직원 최 모(49)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여 만원을 선고했다. /김민근 기자

‘재량사업비 의혹’ 도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전주지검, A의원 사무실·자택 대상... 관련 서류·하드디스크 등 확보

검찰이 ‘재량사업비 의혹’ 비리에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7일 오전 추가로 전북도의회 A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재량사업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B씨의 증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검찰에 의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아직 수사 중에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에도 도의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 브로커 B씨를 상대로 다수 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량사업비 비리에 관해 전북 지역 전·현직 도의원 2명이 구속기소되고 현직 도의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검찰의 압박이 강해지고



7일 검찰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전북도의회 한 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있다.

특히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노씨 회사 직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관련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 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 숙원사업비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상민 기자

무주저수지서 50대 숨진채 발견

무주 저수지에서 실종신고 된 50대가 숨진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은 7일 오전 8시 35분께 무주군 적상면의 한 저수지에서 A(53남)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경 외출한 뒤 다음날이 돼도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아 이틀동안 수색을 벌여왔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원룸소동 김광수 국회의원 해명, 의혹만 키워

선거 도운 지인으로 표현 여성 A씨, 김 의원을 '남편' 이라 언급

가정폭력 의혹에 휩싸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의원이 '전주 원룸' 사건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 4분께 전주 완산경찰서에 들어온 가정폭력 의심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완산구 원룸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난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A(51)씨와 함께 김 의원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김 의원은 개인 SNS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고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 A씨의 부상이 심각해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현

행법으로 연행했고,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경찰 조사 중에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김 의원 손이 흉기에 찔려 상처가 깊은 점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어 SNS에 여성 A씨를 선거를 도운 지인으로 표현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김 의원을 '남편' 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치료를 위해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돌아오는 10일쯤 경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